

유가는 물가 걱정으로, 코스피는 ‘한국만의 이유’로 — AI는 더 싸지고, 더 일을 대신한다

지난주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확 뛰었습니다. 그런데 금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사람들은 ‘전쟁 피난처’보다 ‘이자가 오른다’는 쪽을 더 겁냈다는 뜻입니다. 같은 날 코스피도 크게 빠졌지만, 그건 세계가 한순간에 망했다기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의 과열·빚 정리 성격이 큼니다. 아래는 숫자를 쉽게 풀어 읽은 안내입니다.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.

지표	S&P 500	KOSPI	WTI	GOLD	US 10Y
증가	7,516	6,807	\$78.14	\$3,997	4.60%
Δ	3M +6.9%	1M -19.7%	1D +9.4%	Q2 -14%	↑ vs prior
한줄	상승세 남음	한국만의 급락	물가·원가	이자>피난처	돈값↑
as-of	2026-07-13 close (B) · USD/KRW ~1,503원 동시 참고				

※ 의사결정 지원 자료입니다. 매수·매도 지시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. 기준일: 2026-07-13 마감.

\$1. 세계 경제 — 한 주간을 쉽게

한 줄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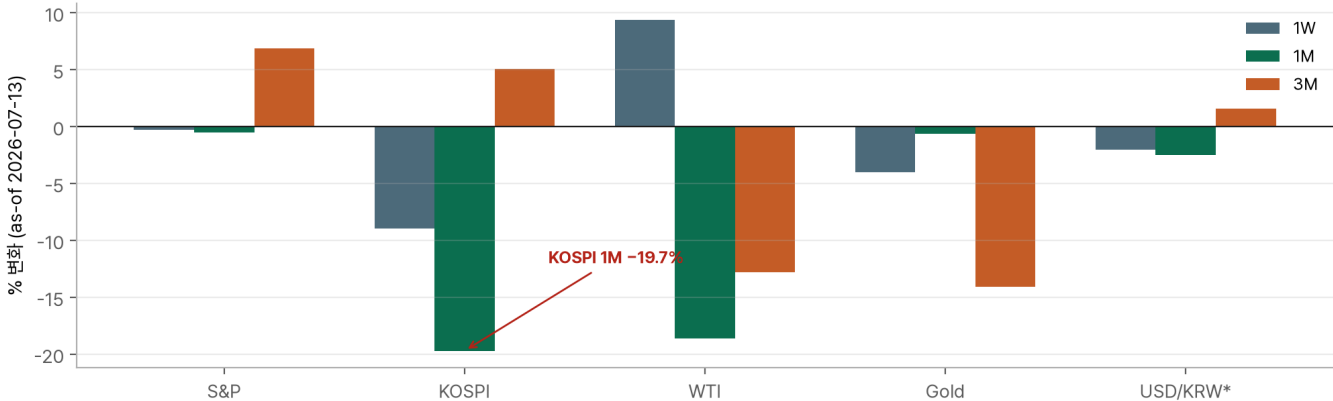
미국 주식은 ‘살짝 숨 고르기’에 가깝고, 한국 주식은 ‘크게 흔들린’ 쪽입니다. 원유는 다시 불을 붙였고, 금은 힘을 못 썼습니다. 금리(돈값) 걱정이 눈에 띍니다.

왜 미국과 한국이 다르게 보이나요?

미국 대표지수(S&P; 500)는 최근 3개월로 보면 아직 +6.9%로 오른 자리에 있습니다. 최근 일주일·한 달은 거의 보합~약한 하락입니다. 즉, 큰 상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소화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.

한국 코스피는 한 달 -19.7%로 차이가 큼니다. ‘미국이 조금 조정이니 한국도 비슷하다’고 보면 안 됩니다. 같은 세상인데도 움직임의 크기가 다릅니다.

쉬운 해석: 미국은 숨 고르기, 한국은 큰 충격 — 유가 급등은 재가속이지 사상 최고 고착은 아님



*USD/KRW↓% = 원 강세 출처: FRED/Investing/KRX/AP/DJ · close 2026-07-13 · 일부 1W는 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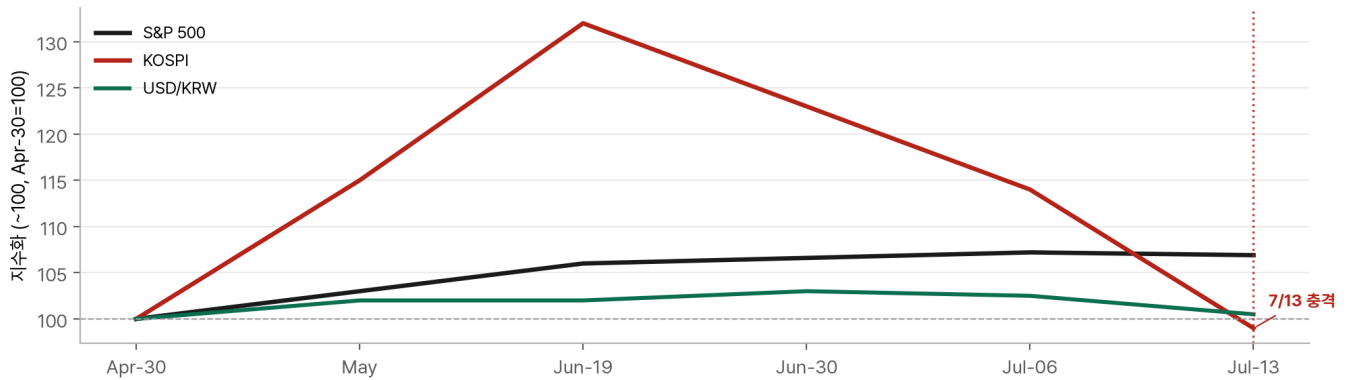
쉬운 말 · 소화: 상승세가 남았는데, 뉴스와 과열을 가격이 먼저 가라앉히는 구간. 위험회파: 사람들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는 분위기.

주식 — 미국은 조용한 편, 한국은 과열 정리

미국은 AI·기업 실적을 앞두고 성장주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래도 3개월이 플러스라면, 시장이 ‘미국 경제가 바로 망한다’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.

한국은 소수 대형주(특히 반도체) 비중이 큼니다. 여기에 레버리지(빌린 돈으로 더 산 상품)가 겹치면, 기대가 한꺼번에 풀리며 지수가 하루에도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. 그건 ‘하루 만에 한국 경제 전체가 그만큼 줄었다’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. 다만 시간이 지나면 기본·담보·외국인 자금·환율 쪽으로 번질 수는 있습니다.

쉬운 해석: 같은 세상인데 진폭이 다름 — 한국 등락폭이 미국보다 훨씬 큼



지수화 재구성 B/C · 출처: Investing/FRED/KRX-관련 언론 · as-of 2026-07-13

쉬운 말 · 한국만의 원인: 세계 공통이 아니라 그 시장만의 이유. 이미 반영됨: 좋은 소식/나쁜 소식을 주가가 미리 반영한 상태.

원유 — 물가와 ‘이자 내리기 어렵다’는 걱정

서부텍사스유(WTI)가 78.14달러로 하루 +9.4% 올랐습니다. 기름이 오르면 운송비·화학·전기요금 쪽으로 비용이 새고, 소비자물가 뉴스에도 바로 잡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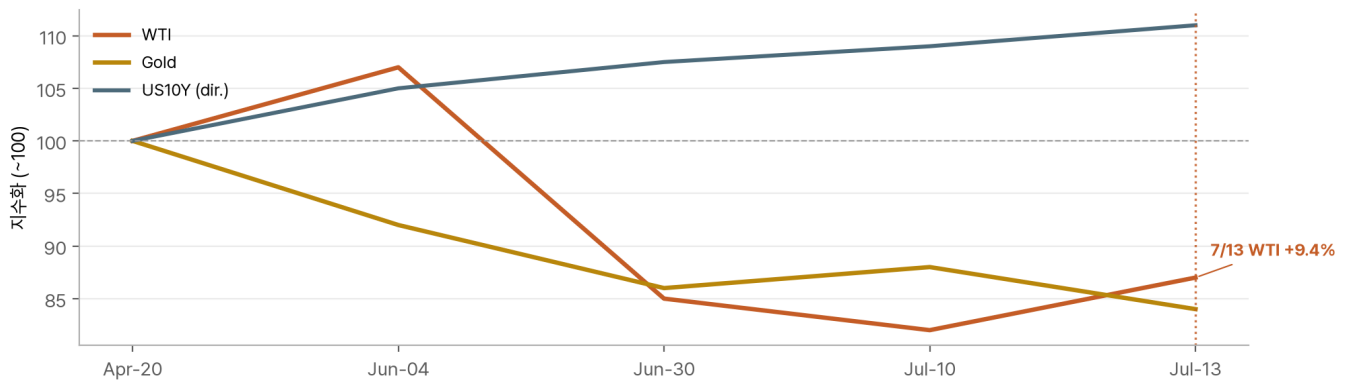
해협(호르무즈) 위험이 커지면, 실제 막힘이 적어도 ‘불안하니 가격을 올려 받는’ हाल증이 붙습니다. 다만 지난 봄~초여름 고점보다 낮은 자리에서의 재상승이라 ‘사상 최고가에 고착됐다’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도 하루 급등은 ‘물가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어렵다’는 분위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. 기름을 많이 사는 한국에는 기업 마진·수입 부담이 더해집니다.

금·금리·원/달러 — 피난처보다 ‘돈값이 이겼다’

금이 약세를 보인 건, 전쟁 뉴스만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. 해석은 단순합니다. 기름↑ → 물가 걱정↑ → 금리·달러 쪽 압력↑ → 이자도 안 주는 금은 ‘들고 있기 아쉽다’는 생각이 커집니다.

미국 10년물 금리는 약 4.60%(2026-07-13, B) 근처까지 올라가면, 집값 대출·회사채·주식 가치 계산의 기준점이 함께 올라갑니다. 원/달러는 약 1,503원(2026-07-13 서울 종가 근처, B)로 수입 물가·달러 결제·수출 채산성이 예민해지는 구간에 가깝습니다. 최근 고점보다 조금 내려왔어도, 부담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쉬운 해석: 유가↑·금리↑·금↓ = 피난처보다 ‘돈값이 오른다’는 걱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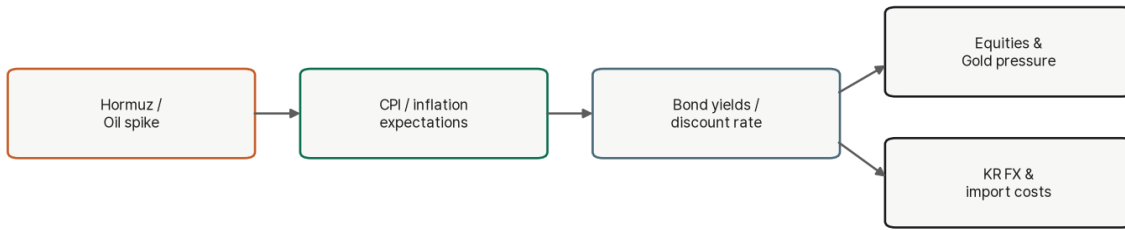


종가 힌트: WTI 78.14 · Gold 3,997 · US10Y ~4.60% (2026-07-13, B) · US10Y는 방향 스케일 C

쉬운 말 · 기회비용: 금을 들고 있으면 받지 못하는 이자. 할인율: 먼 미래 이익을 오늘 값으로 깎는 비율. 긴축책: ‘돈값을 내리기 어렵다’고 읽히는 정책 톤.

충격은 어떻게 우리 생활·회사로 오나

아래 그림은 ‘지금 사라’는 신호가 아닙니다. 기름 충격 → 물가 기대 → 금리 → 주식·금 → 한국 환율·기업 원가 쪽으로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 보는 지도입니다. 여기에 반도체·레버리지 이슈가 주식 진폭만 따로 키울 수 있습니다.



추가: 한국만의 채널 — 반도체 집중 + 레버리지 청산 → 주식 진폭 확대

정리하면, ‘경기가 아주 좋다’도 ‘공황이다’도 아닙니다. 물가는 에너지 때문에 끈적이고, 돈줄은 뻣뻣해지며, 위험자산은 출렁이는 약한 스태그플레이션형 분위기에 가깝습니다. 다만 미국 주식이 3개월 기준 플러스라면, ‘침체에 올린’한 상태는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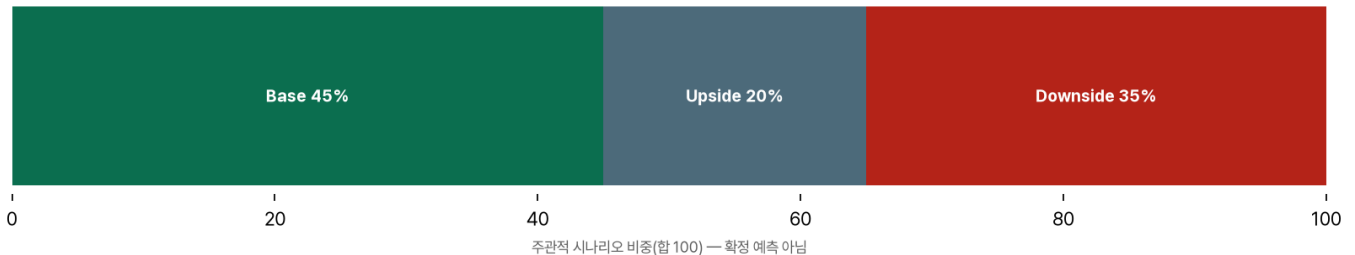
앞으로 볼 시나리오 (가능성 가중 · 예언 아님)

아래 %는 확정 확률이 아닙니다. 배후 논리: 해협 리스크가 ‘실제 봉쇄’가 아니라 ‘프리미엄’으로만 남으면 유가 스파이크가 수 거래일~수주 안에 일부 되돌아가고, 연준은 코어 물가·발언 톤에 먼저 반응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(역사적 유사 에피소드 C). 이번 주는 7/13 동시충격(유가+한국) 때문에 나쁜 쪽을 평소보다 두껍게 둡니다.

- **기본 45%** — 코어 물가 예상 근처 · 연준 발언이 ‘당장 인상’으로 안 읽힘. 깨지면: 코어 뚜렷한 상회 또는 10Y가 빠르게 +15bp 이상.
- **좋은 쪽 20%** — 물가 뉴스가 부드럽고 WTI가 급등분을 상당 부분 반납. 깨지면: 해협 리스크 재점화·WTI 재가속.
- **나쁜 쪽 35%** — 핫 코어·매파 톤·해협 지속. 깨지면: 유가·금리가 동시에 빠르게 안정되고 코스피 수급이 정상화.

체크리스트(48h): 헤드라인 vs 코어 · 연준 관련 발언 톤 · WTI 되돌림 · 코스피 수급 · 원/달러 1,500원대.

시나리오 지도: 유가·한국 급락 뒤 나쁜 쪽을 조금 두껍게(주관)



우리 회사·가정에 던지는 질문 (지시 아님)

이 숫자들의 핵심은 ‘수익을 보장한다’가 아니라 **운전 조건(원가·환율·심리)이 바뀌었다**는 점입니다.

- 유가와 환율이 같이 흔들리면, 수입 원가와 달러 결제가 동시에 흔들립니다.
- 중시 급락은 기본·담보·의사결정을 더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
- 한·미 관세 일정(7/24 전후)은 수출 단가에 ‘기한 있는 불확실성’을 넣습니다.

생각해 볼 점: 달러 지급을 나눠 할까? 유가·운임을 가격에 넘기는 조항을 열어둘까? 지금은 ‘변동성을 안다’만으로도 충분한가?

브릿지 — 왜 유가·금리가 AI 이야기와 한 장에 붙나

§1의 약한 스태그플레이션형 분위기(에너지 물가 끈적 + 돈값↑)는 §2의 AI 산업과 같은 줄에 있습니다. 빅테크·클라우드·데이터센터는 전기·냉각·자본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. 금리가 높게 오래 가면 설비투자(CapEx)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, 유가·전력요금에 뛰면 AI 추론·학습의 ‘숨은 원가’가 함께 민감해집니다.

반대로 이번 주처럼 모델이 싸지고(Luna/Grok/Meta 유료 티어) 에이전트가 직장에 붙으면, 기업은 ‘쓰느냐 마느냐’가 아니라 **어느 요금제·어느 검증 단계로 쓸까**를 고릅니다. 즉 매크로는 AI의 전기·돈 가격을, AI 제품은 화이트칼라 원가와 칩·IDC 수요를 동시에 건드리는 한 줄거리입니다.

§2. AI · 딥테크 — 지난주(7/7~14)를 쉽게

한 줄 요약

이번 주는 ‘새 모델 하나’ 소식이 아닙니다. **싸고 빠른 버전 · 일 대신 해주는 에이전트 · 말로 대화 · 그림·영상 생성**이 한꺼번에 제품으로 나온 주입니다. 같은 주에 한국은 칩·공장형 AI·데이터센터 정책을 키우려는 이야기까지 겹쳤습니다.

쉬운 해석: 이번 주는 에이전트·요금제 전쟁 — 모델이 「제품 묶음」으로 나옴



출처: OpenAI / Anthropic / Meta / Verge / ZDNET / 연합뉴스 등 (B) · 주간 하이라이트(완전 목록 아님)

OpenAI — GPT-5.6 세 가지 버전 (7/9)

Sol(최고 성능) · Terra(일상·균형) · Luna(저비용·빠른 응답)로 나뉩니다. 회사 설명으로는, 코딩·사무·과학 같은 일에서 좋은 점수를 **토큰(말의 단위)을 덜 쓰며** 내겠다는 쪽입니다.

특장점: 여러 AI가 동시에 돕는 **ultra**, 컴퓨터 화면을 다루는 능력 강화, 정확도를 우선하는 Max 모드. 이전에는 정부가 허가한 조직만 보던 미리보기가 끝나고 일반 공개로 옮겼다는 정리입니다.

ChatGPT Work — ‘채팅’이 아니라 ‘일 끝장내기’ (7/9)

문서·표·슬라이드·웹까지 결과물을 만든다고 표방하는 업무용 에이전트입니다. 슬랙·지메일·드라이브·캘린더·CRM 등을 붙이는 플러그인도 강조합니다.

해석: ‘누가 AI 점수가 높나’ 싸움에서 **누가 회사 업무 화면에 자리를 잡나** 싸움으로 옮겨 간 신호입니다.

GPT-Live — 말로 끊기지 않는 대화 (7/8)

듣고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음성 모드입니다. 어려운 질문은 뒤에서 더 센 모델에 넘기며 대화 흐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. 영상·화면 공유는 아직 제한적입니다.

쉬운 해석: AI가 ‘글창’에서 ‘옆에 앉아 말하는 동료’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.

Anthropic — Claude Sonnet 5 · Fable 5

(6/30) Sonnet 5가 무료·프로 기본으로 올라왔습니다. 계획 세우고 브라우저·터미널을 쓰는 ‘에이전트형’이 강조됩니다. 도입 가격을 잠깐 낮춘 뒤 올리는 구조도 공개됐습니다.

(7/1) Fable 5는 수출 통제가 풀린 뒤 다시 풀렸습니다. 실력뿐 아니라 **나라 간 규제**가 AI 공급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다시 보여 줍니다.

Meta · xAI · Google — 그림·가성비 코딩

(7/7) Meta Muse Image: 지시를 따라 이미지를 만들고 고치는 쪽. 생성물에 출처 표시도 넣습니다. Muse Video는 미리보기 단계.

(7/9) Muse Spark 1.1: 메타의 유료 언어모델 라인. 위임 업무·재무 분석 등에서 상위 모델과 겨룬다고 주장합니다.

(7/8) xAI Grok 4.5: 코딩에 강하고 가격을 낮게 잡은 ‘가성비’ 포지션. Google Gemini 3.5 Pro는 7월 일반 공개를 기다리는 단계로 정리됩니다.

연구·여론 — AI가 ‘경제 변수’가 되다

Yale 등에서는 AI에 많이 노출된 기업의 성과와 토큰 소비를 보는 연구가 나옵니다. 경제학자들 성명(「지금 행동해야 한다」)은 노동·소득 재편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

이번 주 Work·ultra·Muse 같은 제품은 그 경고를 **실제 화면**으로 옮긴 주에 가깝습니다.

한국 — 칩·물리 AI·데이터센터 정책 (7/13)

정부·여당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투자 ‘메가프로젝트’를 입법·예산으로 키우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반도체·현장형(물리) AI·데이터센터가 축이고, 특별법·특구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.

해석: 세계 AI 전쟁이 한국에서는 **칩·전기·공장·로봇 수요**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같은 주 코스피 급락은 ‘AI 산업 = 무조건 주가 상승’ 공식을 깨뜨립니다. 정책 호재와 주식 수급은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경제·직장에 미치는 다섯 가지 경로

- **원가** — 싼 요금제가 늘면, 작은 회사·내부 톨에도 AI가 더 쉽게 들어갑니다.
- **노동** — Work류는 ‘초안~완성’을 압축합니다. 대신 검증·책임·보안이 사람 일의 핵심이 됩니다.

- **규제** — 정부 승인·수출 통제는 ‘모델이 있어도 못 쓰는’ 위험을 남깁니다.
- **인프라** — 유가와 데이터센터 확장은 전기·냉각 비용을 민감하게 만듭니다.
- **한국** — 메모리·로봇 특수와 정책 수혜는 가능해도, 주가 진폭은 공급이 먼저입니다.

AI 시나리오 (가능성 가중 · 합 100%)

배후 논리: 이번 주는 ‘모델 점수’가 아니라 ‘요금제·워크스페이스·규제 게이트’가 한꺼번에 제품화됐습니다. 과거 SaaS 전환처럼 직장 기본값 싸움은 수개월이 걸리므로 에이전트 가속(25%)보다 티어 분화(40%)에 먼저 무게를 둡니다. 수출통제·정부 게이트·환각 사고 뉴스가 이미 공급을 흔든 주라 규제·조정(35%)도 두껍게 둡니다.

- **선택적 도입 40%** — 고난도·규제 민감은 비싼 모델, 대량 업무는 싼 모델. 깨지면: 단일 벤더가 전사 기본값으로 빠르게 고착.
- **에이전트 가속 25%** — Work/Cowork가 직장 기본값이 되며 업무 소프트웨어 재편. 깨지면: 보안사고·감사 거부로 파일럿이 멈춤.
- **규제·사고·조정 35%** — 통제 강화, 환각 사고, CapEx 회의. 깨지면: 2주 내 대형 규제 완화·전력/금리 부담 동시 완화.

앞으로 2주 볼 것: GPT-5.6/Work 실제 사용감 · Gemini 3.5 Pro 공개 · Muse 유료 반응 · 한국 메가특구·예산 진도 · AI 데이터센터 전력·요금 뉴스.

HQ · DS-ONE · SaveTax에 던지는 질문

- DS-ONE: 현장·음성 AI를 붙일 때 오프라인·기록·환각 기준은 무엇인가?
- SaveTax: 싼 모델로 초안, 비싼 모델·규칙으로 확정 — 이렇게 나눌 것인가?
- HQ: 회사 드라이브·CRM을 에이전트에 연동할 때 데이터 반출 화이트리스트는?
- 벤더를 한 곳에만 돌지, 여러 모델을 섞을지?

용어 · GA: 일반 공개. full-duplex: 말하며 듣기. ultra/Max: 여러 AI·꼼꼼 검증 모드. 물리 AI: 로봇·현장 장비와 붙는 AI. IDC: 데이터센터.

출처

- S&P; 500: FRED / Investing.com 종가
- KOSPI: 한국거래소·연합·아주경제 등 보도 종가
- WTI·Brent: AP / TS2.tech 결제·보도
- Gold (COMEX): Dow Jones Data Talk / Invesco Q2 리뷰
- US 10Y: 시세 매체·브리프 인용
- USD/KRW: 서울 외환시장·Yonhap Infomax / DevBox
- AI 출시: OpenAI(GPT-5.6·Work·GPT-Live), Anthropic(Sonnet 5·Fable), Meta(Muse), The Verge, ZDNET, FelloAI 트래커
- KR 정책: 연합·헤럴드경제·아시아경제·동아일보·TNW
- 연구: Yale News AI Premium · TNW/Qz 「We Must Act Now」
- 기준: 경제 수치는 2026-07-13 마감 · AI는 2026-07-07~14 주간. 시나리오 %는 주관적 가중이며 확정 예측·매수매도 자문이 아님.
- 호수 HQ-EAI-2026-001 · 작성일 2026-07-14 · 피어리뷰 보완(브릿지·시나리오 논리·차트 주석).